

강진군, 사랑의 집짓기 준공 및 입주식

사랑의 집 대상자 위해 매칭그랜트 사업 신청

공동모금회 · 강진군의 후원…화재가구 신축

강진군 도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장애인가구에게 포근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최근 도암면 성자마을에서는 뜻하지 않은 화재로 집을 잃은 장애노인 가구를 위한 ‘사랑의 집’ 준공식 및 입주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승우 강진군수, 위성식 강진군의회 의장, 김상균 전남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비롯한 도암면 기관단체장과 도암교회 교인, 마을주민 등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축사업은 대상자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도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울 길을 찾다가 공동모금회 매칭그랜트 사업을 신청했고 작년 10월 이에 선정돼 지원의 길이 열렸다.

공동모금회 매칭그랜트사업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봉사단체와 일정비율의 매칭금을 모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새집을 지어주는 사업으로 강진군에서는 지금까지 22호의 새집을 완공한 바 있다.

이번 신축사업에도 강진군이 1천5백만 원, 공동모금회가 1천만 원, 도암지사협이 5백만 원을 각각 지원했으며 대상 가정의 기족들도 1천원 원을 부담했다.

이와 함께 도암교회 교인들이 현금 2백만 원을 도암지사협에 전달해 힘을 보탰고 남일레미콘 임병덕 대표와 도원건설 김병환 대표도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지석마을 윤지오 이장은 전기설비에 재능기부를, 도암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전기장판을 선물하는 등 한마음으로 동참했다.



특히, 건축시공을 맡은 서평건설 이광기 사장은 건축비 규모로 볼 때 사업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훼嵬히 ‘사랑의 집 짓기’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 16평의 ‘사랑의 집’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더해졌다.

이승우 군수는 “기장 활발한 활동으로 민관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는 도암지사협에 감사드린다. 새 집에서 사실 두 분도 앞으로는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했다.

이어 위성식 군의장과 김상균 공동모금회 사무처장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각각 전했다.

한편, 도암지사협은 2019년 강진군 읍면 지사협 활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한 해 동안의 폭넓고 다양한 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어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지역인문 선정 을해의 인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보성별교농협, 보성군장학재단에 기금

별교농업협동조합이 보성군 새해 첫 기부의 문을 열었다. 3일 별교농협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 1,004만원을 보성군 장학재단에 전달했다.

김기순 별교농협 조합장은 “이번 장학금이 보성 미래의 주역인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성군 장학재단 박호배 이사장은 “2011년부터 별교 지역에서 10년 동안 3천6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계신 고마운 분이 계신다.”며, “소중한 장학금은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군 장학재단은 2019년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으로 3개교에 8천만 원, 전문계고 특기적성 개발 지원 사업으로 2개교 2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장학생 170명에게 1억 6천5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보성군 장학재단 박호배 이사장은 “2011년부터 별교 지역에서 10년 동안 3천6백만 원의 장학금을

천불천탑사진문화관, 새해 첫 기획전



화순 천불천탑사진문화관(이하 천사관)이 새해 첫 번째로 여는 전시회 ‘사진문화관 기증자 특별전’이 2일 개막했다. 특별전은 오는 4월 5일까지 열린다.

특별전은 천사관에 사진 작품과 카메라를 기증한 사진가들의 관심과 기증으로 열리게 됐다. 2017년 4월 천사관이 문을 열면서 카메라와 관련 도서, 사진 작품 기증이 줄을 이었고, 그중 선별한 사진 작품 50점과 카메라 50점 등 총 100

점을 특별전에 선보인다.

작품을 기증한 김한용·오상조·윤용대 작가는 초기 대한민국 사진계의 선구자들로 흑백과 컬러, 앤솔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모두 거쳤다.

우리나라 광고 사진계를 이끌었던 故 김한용 작가, 광주·전남 지역 대학 최초로 사진학과를 개설해 후학 양성에 빛나온 윤용대 작가의 작품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열정적으로 예술가의 길을 걸어온 작가들의 삶과 서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작품과 한때는 누군가의 보물이었던 다양한 카메라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특별하다.

천사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관립료는 무료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천사관에 하면 된다.

천사관은 화순군이 운영하는 천사관에 진입할 때마다 천사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느껴진다. 천사관은 화순군이 운영하는 천사관에 진입할 때마다 천사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느껴진다.

화순=박순철 기자

문화융성
관람에서 시작합니다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이며,
미래까지도 같하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재산은 물론 행복, 꿈, 미래까지 영영 못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보다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터넷진흥재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